

의문사구의 이동과 그 흔적의 자질 점검

이 상 오
(전북산업대학교)

Lee, Sang-oh(1995), *The Movement and Feature-Checking of Wh-phrases*. *Linguistics*, vol. 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Case theory under the Minimalist Program tells about the traces left by the movement of wh-phrases and how it checks the features of them with the suggestion that PRO should be checked its "Null Case." The licensing way of wh-traces in wh-constructions is discussed in terms of chain referring to the effects of Subjacency and the Empty Category Principle(ECP).

I. 머리말

Chomsky & Lasnik(1991)은 PRO는 이동에 대해서 격표시된 명사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근거 하에 구조 격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PRO는 영격(Null Case)을 점검 받는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영격 가설을 도입한 격 이론이 최소 이론에서 wh-의문문이 남긴 의문사구 흔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논의해 본다. 또한 의문사구 흔적을 포함하고 있는 wh-의문문이 연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최소 이동(shortest movement)과 최소 단계(fewest steps)의 두 가지 경제 원리를 준수해야 하는 Chomsky(1993)의 연쇄 형성(Form-Chain)이라는 기본적 변형 수단과 더불어 논의한다.

가시성 조건은 의문사구 흔적도 논리형태에서 그 격 자질을 점검 받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최소이론의 격 이론 하에서 의문사구 흔적이 영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현적 구조 격에 의해서 허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의문사구 흔적의 연쇄가 적합하게 점검

된 격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구 연쇄는 영격만이 적합하게 점검되는 내포절 IP의 지정어 위치가 아닌 구조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는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격 가설이 잘 적용되는 듯 하면서도 문제점이 따름을 알아본다.

또한 최소 이론에서의 하위인접 조건과 공범주 원리의 효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어진 표현 (SD)에서 어떤 위반 흔적(offending trace)이 그 도출 상에서 생성되면 그 표현은 하위인접 조건 위반(도출상의 파탄(derivational crash))을 보인다. 위반 흔적이 논리형태에 까지 남아있게 되면 공범주 원리 위반(표시적 파탄(representational crash))을 보인다. 따라서 공범주 원리 위반이 논리형태에 위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하위인접 조건 위반보다 더 심한 비문법성의 결과를 초래함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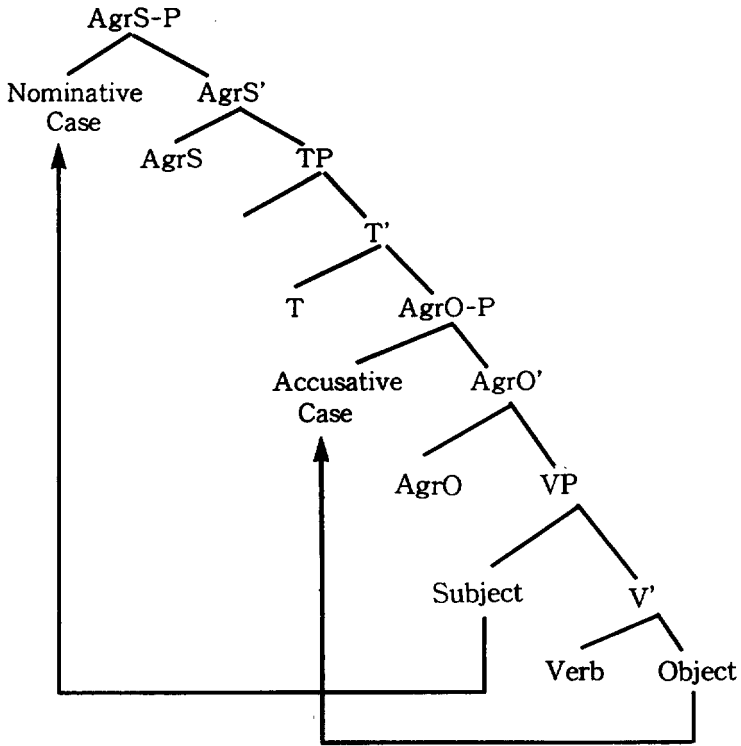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최소이론에서는 논리형태 의문사구 이동(또는 양화사구 이동)은 의문사(또는 양화사)만 이동시킨다고 보아왔다. Chosmky(1993: 26)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wh-구(wh-in-situ)를 CP의 Spec에 있는 wh-구와 연결시키는 논리형태 규칙은 α -이동의 한 경우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Higginbotham & May(1981)가 제안한 흡수에 대한 통사적 근거(syntactic basis)로 생각할 수도 있다. 두 wh-구들을 연결시켜 일반 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를 형성하는 흡수 과정(absorption operation) 규칙에 대해서도 논의해 본다.

II. 논의를 위한 준비

최소이론의 여러 가지 가정들 중에서 논의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가정들을 우선 개관하고자 한다.

Pollock(1989)의 제안을 따라 절(clause)의 구조를 (1)처럼 가정한다.

(1) 절의 구조



(화살표는 격 점검을 위한 이동을 나타냄)

위의 구조처럼 주어와 목적어는 둘 다 동사구(VP) 내부에서 기저생성(base-generated)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목적어는 Vo의 보충어(complement)가 되며 VP의 지정어(specifier)에는 주어가 있게 된다. 이전의 연구를 따라, 여기서의 가정은 구조격(Structural Case)은 어떤 특별한 관계, 즉, 핵과 그 지정어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핵에 의한 지배(head-government)는 이 이론의 틀에서는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한다. 격이론은 이제 자질 점검(feature-checking)의 이론으로 축약된다. 즉, 주어와 목적어는 둘 다 인상(raising)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능 핵(functional head)와

74 이상오

더불어 핵-지정어 관계에 있어서의 격 자질을 점검한다. 여기서 기능 핵이란 일치 구(agreement phrase)의 핵을 말한다. 점검 받을 자질들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약 자질(weak feature)은 해석 부(interpretive component)인 논리형태에 이르기 전에 점검될 필요가 없으며 강 자질(strong feature)은 PF부에 가시적이다. 그러나 이 강 자질은 해석될 수가 없으므로 철자화(SPELL-OUT) 이전에 점검되어야 한다.¹ 자질점검의 목적을 위한 이동은 외현적일 수도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도출의 어떤 지점에서 주어는 반드시 AgrS의 Spec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목적어는 AgrO의 Spec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이동의 결과는 (3)에서 화살표가 보여 주듯이 내포하는(nesting) 통로(path)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crossing) 통로를 구성한다. Chomsky(1991)의 문제점은 논항의 인상 시에 무엇이 부적절한 Agr 투사의 지정어로 인상되는 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었다. 즉, 목적어가 주격의 자질을 점검하는 AgrS의 지정어로 인상되는 것을 막고 주어가 대격(Accusative Case)을 점검하는 AgrO의 Spec으로 인상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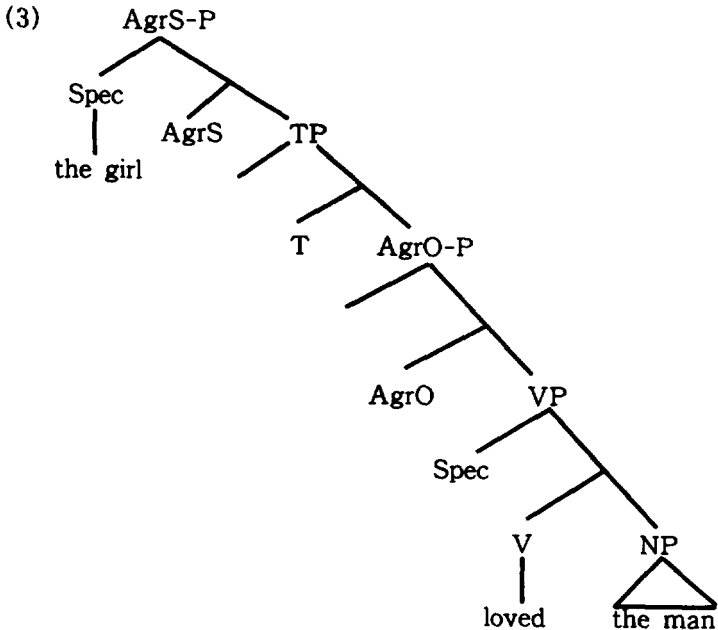
Chomsky(1992)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가정에 의해서 이동은 외현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항상 “최단거리 이동(Shortest Movement)”과 같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제약된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다.

(2) 최단거리 이동 원리

이동의 표적(target)은 최초의 적절한 도착지점 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적절한 도착지점이란 다음과 같은 위치를 나타낸다.

- (i) 핵 이동(Head movement)을 위한 핵 위치
- (ii) 논항이동(A-movement)을 위한 AgrP, TP, VP 의 Spec 위치
- (iii) 비논항이동(A'-movement)을 위한 CP의 Spec과 부가 위치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주어가 외현적으로 인상되며 목적어는 논리형태에 이르기까지 VP에 제자리에 남아있게 된다. 다음 (3)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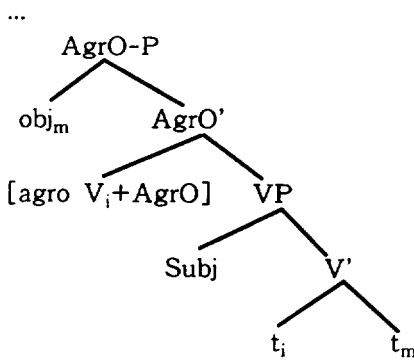
의현적 통사부(S-구조)에서 주어는 VP의 Spec 위치에서 AgrS의 Spec으로 직접 인상된다. 이것은 (2)의 최단거리 이동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가설에 따라 지정어는 자유로이 생성된다. 즉, 잠재적인 지정어 위치는 이동에 있어서 그 위치가 채워짐으로써 혹은 이동에 있어서 표적이 됨으로써 도출 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 변형(Generalized Transformation) 과정의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주어의 이동시 어떤 지정어 위치가 채워지든지 그 이동은 그 이동의 단계에서 중간에 끼는(intervening) 구가 지정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최단거리 이동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3)에서 AgrO의 Spec과 TP의 Spec은 주어가 이동되는 단계에서 어떤 요소로도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표적지 AgrS의 Spec은 최초의 적절한 도착지점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목적어는 AgrO의 Spec에서 목적어 자질을 점검 받기 위해 논리형태에서 인상되어야 한다. 이것은 목적어가 VP의 Spec에 있는 주어의 흔적을 건너 위의 최단거리 이동 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문제를 낳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Chomsky는 최단거리 이동을 위한 거리는 연쇄(chain)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의 논의에서 LF 인상과 동사의 AgrO로의 부가(adjunction)는 AgrO내의 V가 머리(head)가 되고 VP 투사(projection)를 이끄는 흔적이 꼬리가 되는 $C=(V, t_{verb})$ 의 연쇄를 형성한다. AgrO의 지정어와 VP의 지정어는 서로 배타적으로(exclusively) 연쇄상에서 동일한 최소 관계(즉, Spec과 Head)를 이 연쇄와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위치는 V의 보충어로부터 거리 상으로 동일하다(equidistant)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목적어를 AgrO의 Spec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실 VP의 Spec을 뛰어넘는(skip) 셈이 되며 반면에 VP의 Spec은 최초의 적절한 도착지점이 될 수 있다. 핵 이동은 AgrO의 Spec을 동사에 대한 목적어인 VP의 Spec과 거리 상으로 동일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정의대로 동사에 대한 목적어인 VP의 Spec보다 거리 상으로 더 멀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정확히 한 지정어를 뛰어넘는 것(skipping)은 최소이동의 원리를 모면하게 되는 셈이다.

(4)



요약하면, 연쇄에 대해서 정의된 최단거리 이동 원리의 제약은 주어는 결국 AgrS의 Spec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목적어는 AgrO의 Spec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그 역의 현상은 불가능함을 말해준다. 원리상, 주어와 목적어의 이동이 외현적일 수도 있고(S-구조) 눈에 보이지 않을(논리형태) 수도 있을지라도 동사가 AgrO의 Spec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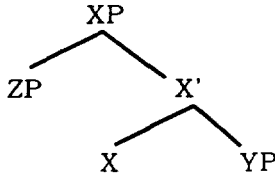
이동하는 외현적 이동은 주어의 이동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동사가 외현적으로 이동하고 TP의 Spec이 주어가 이동할 때 잠재적인 도착지점이 될 수 있는 위치의 환경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III. 의문사구 흔적의 자질 점검

3.1. PRO와 흔적의 상보적 분포

최소이론에서 격 이론을 논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은 기본 X' 이론을 따른다.

(5)



(5)에서 ZP의 X에 대한 지정어-핵 관계와 YP에 대한 X의 핵-보충어 관계를 볼 수 있다. 우리의 격 이론 논의에서 필요한 관계는 지정어-핵 관계이다.

LGB 형태의 격 이론에서 주격 점검은 IP 체계의 도입 이후 이미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이루어 졌고 지정어-핵 관계로 격 이론을 일반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³ Chomsky(1991)의 제안을 따르면 구조격은 (6)의 절의 기본 구조의 AGRP에서 지정어-핵 사이의 관계의 한 표출이다.

(6) [CP SPEC C° [AgrP SPEC Agr° [TP Tns° [AgrP SPEC Agr° [VP V]]]]]

이러한 격 이론 하에서 격을 보유하는 핵이 적합한 AGR로 인상된 후 지정어-핵 관계를 통하여 격이 점검된다. 격 자질을 보유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78 이상오

- (7) a. 시제절 Tns^o는 주격 자질을 보유한다.
- b. 비시제절 Tns^o는 영격 자질을 보유한다.
- c. 어떤 V^o는 대격 자질을 보유한다.

Chomsky & Lasnik(1991)은 PRO는 이동에 대해서 격표시된 명사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근거 하에 구조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PRO는 기본적으로 부정사절의 주어 위치에 제한되므로 PRO를 구조적 체계로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7b)를 가정하면서 PRO는 영격(Null Case)을 점검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PRO의 영격은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뚜렷한 격의 유형과는 다르다. PRO는 이 격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또한 비시제 INFL이 지정어-핵 일치 장치를 통하여 유일하게 영격만을 점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격의 점검이론을 가정해 볼 때, 어휘사전(lexicon)은 영격의 자질을 소유하는 PRO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사전에는 주격 PRO나 대격 PRO는 없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PRO는 영격을 점검하는 타당한 비시제 T에 의해서 점검 받는 자질만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면 PRO는 영격이 점검될 수 있는 환경으로만 제한된다.

결국 (7b)는 PRO가 부정사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곳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PRO와 흔적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현상이 설명된다.

3.2. PRO의 영격 점검

점검 방식에 있어서 다른 명백한 구조격과는 구별되어 PRO는 영격을 갖는다라는 Chomsky & Lasnik(1991)과 Chomsky(1992)의 제안에 따라 Watanabe(1993)는 C^o 요소에 의해 직접 선택되는 [+Tense] 자질이 결여된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 만이 영격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영격 부여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구조적 부여를 가정하는 최소이론(Chomsky(1992))은 지정어-핵 관계 하에서 이루어짐을 가정하면 PRO가 C^o 요소에 의해 직접 선택되는 [+Tense] 자질이 결여된 I^o(혹은, I^o)의 지정어 위치에만 나타날 수 있음은 Watanabe의 제안으로부터 나온다. 다음

의 (8)과 (9)을 보자.

- (8) a. John tried [PRO to win]
- b. It was illegal [PRO to leave]
- (9) a. *John believed [PRO to have kissed Mary]
- b. *It was certain [PRO to win]

(8)과 (9)의 문법성은 (8)에서의 PRO의 영격은 적절히 잘 점검된 반면 (9)의 PRO는 그렇지 않음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Watanabe(1993)의 영격 이론은 try 와 illegal과 같은 통제 서술어(control predicate)는 CP 보어절을 취해야 함을 요구하는 반면, believe와 certain 과 같이 그들의 비시제 보어절의 주어 위치에 PRO를 배제하는 서술어는 IP 보어절을 취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음 (10)과 같은 영어의 ECM 구조에 대한 Chomsky(1992)의 분석을 살펴보자.

- (10) John believes [IP Mary_i to [VP t_i have a cold]]

(10)에서 내포절의 VP의 Spec 내부에서 기저 생성된 내포절의 주어 Mary는 최소이론에서도 계속 가정되고 있는 확대 투영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의 요구에 의해서 외현적 통사부에서 IP의 Spec으로 이동한다. (Chomsky & Lasnik(1991)과 Murasugi(1992)를 참조하라.) 그러나 내포절 IP의 Spec은 어떤 외현적 구조격(즉, 주격 혹은 대격)도 점검되는 위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포절의 I₀는 [+Tense] 자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럼으로써 어떤 외현적 구조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외현적 구조격이 점검되기 위해서는 (10)의 내포절 주어 Mary가 논리형태에서 주절 AgrO의 Spec으로 인상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음 (11)와 같은 논리형태가 도출된다.⁴

- (11) John [AgrOP Mary_i believes_k-Agr^O [VP t_k [IP t_i to [VP t_i have a cold]]]]

영격 이론의 가정과 더불어 (12)처럼 외현적 명사구가 try와 같은 통제 서술어의 내포절 주어 위치에 오는 부적격한 예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2) *John tried [CP[IP Mary; to [VP t_i win]]]

(10)에서 Mary가 나타나는 IP의 Spec은 어떤 외현적 구조격도 점검되지 않는 위치이다. 그러나 이 위치는 (12)에서 C₀에 의해 직접 선택되는 내포절의 비시제 I₀가 영격 자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격 자질이 점검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결국 (12)은 Mary가 논리형태에서 그 외현적 구조격이 적합하게 점검될 수 있는 위치로 이동되지 않으면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12)에서 Mary는 논리형태에서 격이 점검되는 어떤 위치로도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논리형태 이전에 (12)의 Mary는 이미 구조격(여기서는, 영격)이 점검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Mary가 논리형태에서 구조격이 점검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Mary의 연쇄는 구조격이 점검될 수 있는 두개의 위치를 포함하게 되어 연쇄는 반드시 하나의 격 위치만을 포함해야 함을 요구하는 연쇄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에 이른다.⁵

또한 (12)의 비문법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음 (13)과 (14)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13) *John_i is illegal [CP [IP t_i to [VP t_i leave]]]

(14) John_i is certain [IP t'_i to [VP t_i win]]

(14)에서 내포절 IP의 Spec으로부터 John의 격 자질이 적합하게 점검되는 주절 IP의 Spec으로의 이동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내포절 IP의 Spec은 어떤 격 자질도 점검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로, 핵이 영격을 가진 내포절의 IP의 Spec으로부터 다른 격의 점검 위치로 Mary가 이동하는 (12)의 부적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와 같은 이동 순서로 (13)에서 John의 이동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이동이 연쇄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확

대 투영원리를 무시하고 (13)에 대해서 (15)와 같은 또 다른 도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5) *John_i is illegal [CP [IP e to [VP t_i leave]]]

이 도출이 연쇄조건의 위반을 피하긴 했을지라도 상대적 최소조건(Relativized Minimality Condition)의 위반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논항 이동(A-movement)으로 간주되는 John이 내포절 VP의 Spec에서 주절 IP의 Spec으로 이동하는 것은 논항 위치(혹은 L-관련 위치)인 내포절 IP의 Spec을 뛰어넘기 때문이다.(상대적 최소조건과 L-관련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4.1.을 참조하라.)

이제 불어와 이탈리아의 예외격 표시 구문(ECM-constructions)을 한번 살펴보자. 이 언어들은 그 비시제 보어절의 주어 위치에 외현적 명사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PRO는 허용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ECM 구조와 대조를 이룬다.

(16) French ECM

- a. Je crois PRO avoir fait une erreur.
'I believe [PRO to have made a mistake].'
- b. *Je crois jean être le plus intelligent de tous.
'I believe [John to be the most intelligent of all].'

(17) Italian ECM

- a. Ritengo di PRO avere sempre fatto il mio dovere.
'I believe [PRO to have always done my duty].'
- b. *?Possiamo ritenere queste persone avere sempre fatto il loro dovere.
'We can believe [these persons to have always done their duties].'

불어와 이탈리아의 예외격 표시 구문의 동사가 취하는 비시제

보어절의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영격 가설은 (16b)와 (17b)의 부적격성을 설명해 준다.⁶ 이들은 앞서 논의한 (12)의 부적격성에 대한 동일한 이유로 배제된다.

(12) *John tried [Mary to win].

이러한 (16b)와 (17b)의 비문법적인 예들에서 어휘적 명사구들은 영격만이 허가될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논리형태에서 그 위치에서 그들의 외현적 구조격 자질이 적합하게 점검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면, 그 이동은 연쇄조건 혹은 최후 수단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만일 이들이 논리형태에서 비시제 보어의 주어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그들의 외현적 구조격 자질은 가시성 조건을 위배하므로 적합하게 점검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그들의 부적격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예외격 표시 구문에 대해서는 3.3.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3.3. 의문사구 흔적의 격 점검

이제 위에서 논의한 영격 가설을 도입한 격 이론이 다음의 (18)과 (19)의 wh-의문문이 남긴 의문사구 흔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18) Who_i did you believe [IP t_i to have left]?

(19) *Who_i did you try [CP [IP t_i to win]]?

가시성 조건은 의문사구 흔적도 논리형태에서 그 격 자질을 점검받을 것을 요구한다. (Aoun(1985), Chomsky & Lasnik(1992)을 참조하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의 내포절 IP의 Spec은 C⁰에 의해 직접 선택되는 비시제 I⁰에 의해서 영격이 적합하게 점검되어지는 위치이다. 만일 의문사구 흔적이 영격에 의해서 적합하게 허가될 수만 있다면, (19)는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되므로, 우리는 최소 이론의 격 이론 하에서 의문사구 흔적이 영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현적 구조격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

면, 우리는 (19)의 부적격성을 (12)가 배제되는 똑같은 이유로 처리할 수 있다. 즉, (19)의 의문사구 흔적의 연쇄가 적합하게 점검된 격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구 연쇄는 영격만이 적합하게 점검되는 내포절 IP의 지정어 위치가 아닌 구조격 점검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는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19)의 의문사구 연쇄가 그러한 흔적을 포함한다면 그 연쇄는 두개의 구조격 점검 위치를 포함하게 되어 연쇄조건을 위배하게 된다.⁷

한편, (18)은 (20)과 같은 논리형태를 갖게 된다.

(20) Who_i did you [AgrOP t'_i believe_k-AgrO [VP t_k [IP t_i to have left]]]

(20)에서 의문사구 연쇄는 주절 AgrO의 Spec에 남게 된 흔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 연쇄는 연쇄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내포절 IP의 Spec은 어떤 격도 적합하게 점검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은 주절 AgrO의 Spec 자리에 남은 흔적에서 believe와 주절 AgrO의 합성에 의해서 의문사구의 격 자질이 적합하게 점검되기 때문에 의문사구의 연쇄는 가시성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다. (21)의 비문법성은 (20)의 문법성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지지해주고 있다.

(21) *Who_i is it [AgrOP t'_i AgrO [AP certain [IP t_i to win]]]

(21)에서 형용사 certain은 구조격 자질이 결여되어 흔적은 의문사구의 중간 흔적(intermediate trace)이 남게 되는 주절 AgrO의 Spec에서도 의문사구 연쇄의 격 자질을 점검할 수 없게 되어 연쇄조건을 위반한다.

3.4. 문제점

지금까지 관찰한 영어에 관한 한, 영격 가설이 이들에는 잘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아직도 다음 (22)의 비문법성을 설명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It seems [IP PRO to be happy].

(22)에서 seems는 내포절 주어 PRO를 지배하여 PRO 가설을 어긴다. 영격의 도입은 PRO는 비지배된다는 PRO 가설의 효과를 완전하게 도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PRO 가설의 완전한 효과가 지배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도출될 수만 있다면 지배에 대한 부정사절의 $Tns^0=INFL$ 의 예외적 행동도 역시 제거될 수 있다. 시제절 Tns^0 에 반하는 부정사절 Tns^0 의 속성도 어쨌든 설명되어야 한다. 그 속성은 최소이론의 격 이론 하에서 원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최소이론이 시제-비시제(finite-nonfinite)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 구조적에 대한 예외현상을 도입해 오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정어-핵 관계는 항상 격 점검을 중재한다. 오히려 (7)처럼 다양하게 되는 것은 격과 관계된 Tns^0 의 자질 내용이다. 이것은 비시제절의 Tns^0 의 의미적 내용이 시제절의 Tns^0 의 의미적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영격 가설이 예외적 격표시 구문(ECM construction)의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PRO가 오는 것을 배제하고, 통제 술어와 인상 술어의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어휘적 명사구나 의문사구 흔적이 오는 것을 배제한다는 설명을 보았다.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경우를 보자. (19)의 부적격성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논항) 의문사구 흔적이 영격 자질에 의해서 점검되지 않음을 가정해야 함을 기억하라. PRO가 영격에 의해서만이 점검된다는 가설에 의해서 PRO와 의문사구 흔적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3)과 (24)의 예를 보면 불어와 이탈리아어에는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3) a. Je crois PRO avoir fait une erreur.

'I believe [PRO to have made a mistake].'

b. Quel garçon_i crois-tu être le plus intelligent de tous?

'Which boy do you believe [t to be the most intelligent of all]'

- (24) a. Ritengo di PRO avere sempre fatto il mio dovere.
 'I believe [PRO to have always done my duty].'
- b. Quante di queste personei possiamo ritenere t_i aver sempre fatto il lore doveres?
 'How many of these persons can we believe [t to have always done their duties]?''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의문사구 흔적이 영어와는 달리 영격에 의해서 허가될 수 있다면 (23b)와 (24b)의 적격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할 수는 없다. 다음 (25b)와 (26b)의 비문법성이 말해주는 것은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의문사구 흔적은 영격에 의해서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 (25) a. Jean a essaye_i de partir.
 'John tried [PRO to leave]'
- b. *l'homme que j'ai esaye_i d'être par la police
 'the man that I tried [t to be arrested by the police]'
- (26) a. Cerco di essere messo al corrente.
 'I try [PRO to get acquainted].'
- b. *le persone che_i cerco essere messe al corrente
 'the person that I try [t to get acquainted]'

또한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예외적 격표시 구문은 영격 가설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영격 가설 하에서, (23b)와 (24b)의 적격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6b)와 (17b)에서 관찰한 것처럼 어떤 어휘적 명사구도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예외적 동사의 비시제절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격 가설 하에서, 우리는 의문사구 흔적은 모든 외현적 명사구가 격 자질을 갖는 그러한

외현적 구조격 자질에 의해서 인가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의문사구 흔적의 격 자질에 대한 점검 위치는 어휘적 명사구의 격 자질이 잘 점검될 수 있는 위치와 동일하다. (16b)와 (17b)의 비문법성은 불어와 이탈리아의 예외적 동사의 비시제절의 주어 자리는 어휘적 구조격 자질이 잘 점검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러면 (23b)와 (24b)의 의문사구의 격 자질이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가 아닌 다른 어떤 격 점검 위치에서 점검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이러한 문법적인 예들의 의문사구의 연쇄는 두개의 격 점검 위치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요, 다른 하나는 외현적 구조격 자질이 잘 점검되는 어떤 위치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연쇄 조건을 위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격 가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IV. 의문사구 흔적과 연쇄

4.1 연쇄 형성과 적절한 논리형태 요소를 위한 연쇄 조건

최소이론에서, Chomsky(1993)는 연쇄 형성(Form-Chain)을 기본적 변형 수단으로 취하고 있다. 연쇄 형성은 최소 이동(shortest move)과 최소 단계(fewest steps)의 두가지 경제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외관상 상이한 이 조건들에 대해서 Chomsky(1992)는 연속순환 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을 연쇄 형성의 한 단계(one-step)로 간주한다.

따라서 α -이동은 “최소 고리(shortest link)”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동에 있어서 적절한 표적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그 이동은 부적합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도출의 일반 경제원리로 간주하면 Rizzi(1989)의 상대적 최소원리는 (27)의 조건으로 없앨 수 있다.

(27) 연쇄의 고리를 최소화하라.

(27)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Rizzi의 상대적 최소원리의 효과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자.

(28) X가 중간에 낀 요소 Z와 Y를 성분 통어(c-command)하는

[...X...Z...Y]와 같은 형상에서,

- a. 만일 X가 핵이면 Z는 핵이다.
- b. 만일 X가 논항 위치에 있으면 Z는 논항 위치의 지정어가 된다.
- c. 만일 X가 비논항 위치에 있으면 Z는 비논항 위치의 지정어가 된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29) a. *How fix [John will [t the car]]
- b. *John seems [that [IP it is certain [t to fix the car]]]
- c. *Guess [CP how [John wondered [why [we fixed the car t]]]

(29a)에서 will 은 fix 와 그 흔적 사이에 낀 요소이며 fix와 will은 핵이다. (29b)에서는 it이 John과 그 흔적사이에 낀 요소이며, it과 John은 논항 위치에 있고, it은 IP의 Spec에 있다. (29c)에서는 why가 how와 그 흔적사이에 끼여있고 why와 how는 둘 다 비논항 위치에 있으며 why는 CP의 Spec에 놓여 있다. 이 세가지 경우 모두 비문법적이다. 이 문장들은 최소 고리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29a)에서 핵 연쇄 (fix, t)는 중간에 낀 요소 will 때문에 연쇄 고리를 최소화할 수 없으므로 (27)의 조건을 위반한다. (8b)와 (29c)에 대해서도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고 결국 (27)의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Rizzi의 상대적 최소이론은 (27)의 경제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은 (27)과 일맥 상통하는 Chomsky(1986b)의 공범주 원리에서 연쇄 고리에 대한 조건으로 공식화된 선행사 지배(antecedent government)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30) A가 B를 지배하는 연쇄의 고리 (A, B)에 선행사 지배가 충족되어야 한다.

- (31) A가 B를 m-command하고, Z가 A를 배제하여(exclude) B에 대한 장벽(barrier)이 되는 Z가 없으면 A는 B를 지배한다.⁸

최소이론에서 Chomsky(1992)는 지배의 용어를 없애려 한다. (30)

88 이상오

에 근거하여 연쇄 고리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32) 연쇄 고리 조건

만일 (α_i, α_{i+1}) 가 연쇄의 고리이면 α_i 는 반드시 α_{i+1} 를 성분동어해야 하고 이들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한다.

장벽, L-표시, 의미-점검에 대한 정의는 (33-35)과 같다.

(33) L-표시되지 않는 XP는 장벽이다.

(34) 어휘 자질(=V, A, N, D, T, AGR)을 가진 범주 A가 있을 때 B가 A에 의해서 의미역-점검되는(theta-checked) Z의 핵과 일치하면 A는 B를 L-표시한다.⁹

(35) A가 B를 L-표시하는 X^0 범주이고 A와 B가 자매관계에 있을 때 A는B를 의미역-점검한다.

Chomsky & Lasnik(1991)은 Browning(1987)의 제안을 기초로 적법한 논리형태 요소를 위한 연쇄 조건을 제안한다.

(36) 연쇄의 동질성 조건(The Uniformity Condition on Chains)

연쇄의 구성소들이 L-관련성(L-relatedness)에 대해 동질적이어야 만이 연쇄 $(\alpha_1, \dots, \alpha_n)$ 은 L-관련성에 대해 동질적이다.

어떤 위치가 지정어의 위치이거나 어휘 자질(=V, N, A, P, AGR, T)을 갖는 범주의 보어이면 그 위치는 L-관련되어 있다. (L-관련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3.을 참조하라.) 연쇄의 구성소들이 L-관련성에 대해 동질적이면 연쇄는 동질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핵과 비논항은 L-관련되어있지 않아서 L-관련되어있지 않은 위치로만 이동한다. 그런데 이들이 형성하는 연쇄는 L-관련성에 대해 동질적이다. 논항 연쇄는 L-관련된 위치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 연쇄는 L-관련성에 대해 동질적이다.

유일한 비동질적인 연쇄는 X가 비논항 위치에 있고 Y가 적법한

(동질적) 연쇄를 이끄는 운용소와 변항으로 구성된 (X, Y)이다. Chomsky(1992)에 따르면, 비동질적 연쇄는 비논항 중간 흔적들(intermediate A' traces)을 제거함으로써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흔적들은 논리형태가 해석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는 그 위치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의 수단은 이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최후 수단의 원리가 된다. (36)에서 제거는 운용소-변항 연쇄에서 즉, 비동질적 연쇄에서 논항의 연속 순환 이동의 경우를 위해서는 허용 가능 하다. 비동질적 연쇄의 경우 중간 흔적은 해석을 위해서는 논리형태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동질적 연쇄에서는 그 연쇄가 이미 적법한 대상이 되므로 제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쇄의 기본 유형들인 논항 연쇄, 핵 연쇄, 비논항 연쇄, 운용소-변항 연쇄는 논리형태에서 적법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진다.

4.2. 하위인접 조건(Subjacency)과 공범주 원리(ECP)

하위인접 조건과 공범주 원리의 효과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최소 이론은 주어진 표현 (SD)에서 어떤 위반 흔적(offending trace)이 그 도출상에서 생성되면 그 표현은 하위인접 조건 위반(도출상의 파탄(derivational crash))을 보이고, 위반 흔적이 논리형태에 까지 남아있게 되면 공범주 원리 위반(표시적 파탄(representational crash))을 보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범주 원리 위반이 논리형태에 위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하위인접 조건 위반보다 더 심한 비문법성의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흔적이 위의 두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표시 된다. 또 이 둘을 다 위반하면 **표시 되며 늘어나는 *표시의 수는 비문법성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왜 논항보다 비논항을 추출(extraction)하는 것이 경제 원리를 더 심하게 위반하게 되는지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며 논해 보자.

- (37) a. *How [t"] [do you wonder [CP whether [t"] [John said [CP t" e [t'[Mary solved the problem t]]]]]]

b. ??Who [t"] [do you wonder [CP whether [t"] [John said
[CP t" e [t' [t solved the problem]]]]

비논항의 축출과 논항의 축출 사이의 문법성의 대조는 위반 흔적이 논리형태에 남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도 같다. CP의 Spec에 있는 whether가 t"과 t"사이에 끼여있기 때문에 t"는 *표시되므로 (37a)에서 (how, t)는 (27)을 위반한다. 더욱이 이 연쇄는 비논항 연쇄 즉, 동질적 연쇄이므로 *표시된 t"는 논리형태에 까지 남아있게 된다. 한편, (37b)에서는 (who, t)가 (27)을 위반한다. 왜냐하면 CP의 Spec에 있는 whether가 t"과 t"사이에 끼여있기 때문에 t"는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쇄는 비동질적 연쇄이므로 *표시된 t"는 논리형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논리형태에서 *표시된 흔적을 보유한 (37a)는 (37b)보다 더 문법성이 떨어진다.

다음 (38)의 문장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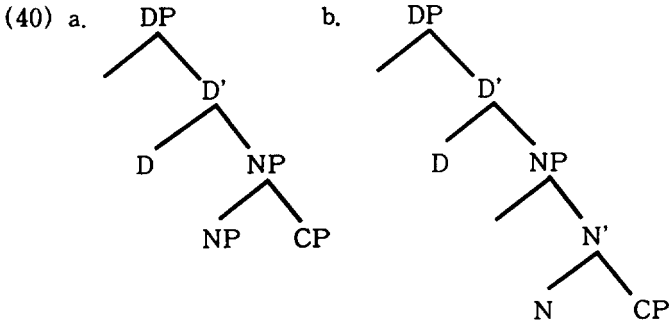
- (38) a. What_i do you think [CP t'_i that [IP Mary fixed t_i]]?
b. How_i do you think [CP t'_i that [IP Mary fixed the car t_i]]?

(38a)는 (27)의 최소 고리 원리를 만족시킨다. 즉, 의문사 what이 종속절의 목적어 자리에서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때 비논항 위치를 하나도 건너지 않고, 또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에서 주절 CP의 지정어자리로 이동할 때도 비논항 위치를 하나도 건너가지 않았다. 최소이론에서 VP는 AGRo에게 L-표시되므로 장벽이 아니지만 C는 IP를 L-표시하지 못하므로 IP는 장벽이다. (38a)에서 IP의 장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문사 what이 종속절과 주절의 IP에 부가되었다가 이동해 간다고 간주하면 된다. 따라서 (38a)에서 의문사 what의 운용소 이동은 장벽을 한번도 건너가지 않는다. 따라서 (38a)는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38b)에서 의문사 how의 운용소 이동은 (38a)의 what의 운용소 이동과 똑같은 이유로 (27)의 최소 고리 원리도 만족시키고 장벽을 하나도 건너가지 않는다. 따라서 (38b)도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그러면, 관계절(relative clause)과 명사 보충어 절 (noun complement clause)로부터 의문사구를 축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법성의 대조를 살펴보자.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다.

- (39) a. *Who do you see the [NP woman [CP who [IP likes t]]]
 b. ??Who do you believe [NP claim [CP that [IP Mary likes t]]]



위의 구조를 보면, (39a)는 관계절로부터, (39b)는 명사 보충어 절로부터 who를 추출한 문장이다. (40a)는 관계절의 구조를, (40b)는 명사 보충어 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40a)에는 한 개의 L-표시되지 않는 장벽이 있고 (관계절 CP), (39b)가 약간 문법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40b)에서는 명사 보충어 CP가 N에 의해 L-표시되므로 장벽이 없다. Chomsky(1986b)는 시제를 포함한 CP는 장벽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장벽은 소위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이라고 불리우는 구문에서 DP를 포함한 시제절 CP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복합 명사구 제약은 아마도 경제 원리 (27)을 위반할 것이다. 그러나 (39a)와 (39b)의 대조는 모든 환경이 동일한 한, 장벽의 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3. L-관련성(L-relatedness)과 T-관련성(θ -relatedness)

최소이론에서 논항위치와 비논항위치는 (41)의 L-관련성의 정의로 (236)처럼 정의된다.

92 이상오

(41) L-관련성(L-relatedness)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의 자질, 즉 어휘자질(lexical feature, L-feature)을 내포하는 핵범주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L-관련된 위치이다.

(42) 논항위치는 L-관련된 위치(L-related position)이고, 비논항 위치는 L-관련 되지 않은 위치(non-L-related position)이다.

(41)에서 말하는 “어휘자질을 내포하는 핵 범주”에는 어휘범주(=N, V, A, P)뿐만 아니라 AGR, T, D등의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AGR과 T가 내포하는 동사 자질(V-feature)도 D가 내포하는 명사자질(N-feature)도 어휘자질(L-featur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와 NEG은 어떠한 어휘자질도 내포하지 않으므로 “어휘자질을 내포하는 핵 범주”가 아니다. 따라서, C와 NEG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비논항 위치이고, AGRo의 지정어는 논항 위치이다.

4.1.에서의 연쇄의 동질성 요인으로 L-관련성과 T-관련성을 설정하고 있다. L-관련된 위치는 앞에서 논의한 논항 위치이고 비L-관련된 위치는 비논항 위치이다. N, V, A, P, AGR, T, D등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L-관련된 위치이고 C와 NEG의 지정어와 보충어는 비L-관련된 위치이다. T-관련된 위치는 의미역-관련된(θ -related) 위치이다. T-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3) T-관련성(T-relatedness)

어휘범주는(lexical category)의 자질, 즉 어휘자질(lexical feature, L-feature)을 내포하는 핵 범주의 지정어와 보충어의 위치는 L-관련된 위치이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44) a. ??What_i do [t_i; [IP you wonder[CP whether [IP t_i; [Mary fixed t_i]]]]]??
b. *How_i do [t_i; [IP you wonder [CP whether [IP t_i; [Mary

fixed the car t_i]]]]]?

(44a)에서 what의 연쇄와 (44b)에서의 how의 연쇄의 L-관련성과 T-관련성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45) a. | C=(what, t", t', t) |
| L-관련성 | - - - + |
| T-관련성 | - - - + |
| b. | C=(how, t", t', t) |
| L-관련성 | - - - - |
| T-관련성 | - - - - |

(45a)는 what의 연쇄이고 (45b)는 how의 연쇄이다. (45a,b)의 두 연쇄 중에서, what의 연쇄의 꼬리 구성소 t만이 [+L-관련성]이면서 [+T-관련성]이다. 즉, t의 위치만이 L-관련된 위치이면서 T-관련된 위치이다. 다시 말하면, t의 위치만이 fixed라는 동사의 논항 위치이면서 의미역 위치이다. 따라서 what의 연쇄는 L-관련성에 있어서도 T-관련성에 있어서도 비동질적 연쇄이다. 앞서 논의한 것 처럼 what의 연쇄 (45a)에서 중간 구성소 흔적들을 제거하면 운용소-변항 연쇄가 된다. 그리고 그 중간 흔적들의 제거를 통해 최소 고리 원리의 위반으로 생겼던 t*도 제거된다. 따라서 (44a)는 도출적 파탄 또는 하위인접 조건의 위반으로 판정된다.

how의 연쇄 (45b)는 [-L-관련성]으로도 동질적 연쇄이다. 동질적 연쇄는 그 자체로서 합법적 연쇄이다. 따라서 (45b)에서 최소 고리 원리의 위반으로 생겼던 t*를 포함하여 모든 흔적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논리형태에서 *를 내포하는 요소는 비합법적 대상이므로 (45b)의 연쇄를 내포하는 (44b)의 논리형태는 완전해석 원리를 어겨 파탄된다. 즉, (44b)는 표시적 파탄 또는 공범주 원리 위반으로 판정된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46) a. ??Who_i do [IP t"_i]; [IP you wonder [CP whether [IP t'_i]; [IP

we believed [IP t_i'[IP we helped t_i]]]]]]]])?

b. *Who_i do [IP t''_i [IP you wonder [CP whether [IP t''_i* [IP we believed [IP t_i'[IP t_i helped us]]]]]]]]]])?

(46a)에서 who의 연쇄와 (46b)에서 who의 연쇄의 L-관련성과 T-관련성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47) a. C=(who, t'', t''*, t', t)

| | | | | | |
|-------|---|---|---|---|---|
| L-관련성 | - | - | - | - | + |
| T-관련성 | - | - | - | - | + |

b. C=(who, t'', t''*, t', t)

| | | | | | |
|-------|---|---|---|---|---|
| L-관련성 | - | - | - | - | + |
| T-관련성 | - | - | - | - | - |

(46a,b)에 대한 Chomsky(199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46a)에서 who의 연쇄는 꼬리 구성소인 t만이 [+L-관련성]이면서 [+T-관련성]이고 나머지 구성소들은 모두 [-L-관련성]이면서 [-T-관련성]이다. 왜냐하면 (46a)에서 helped의 목적어 자리는 의미역 위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46b)에서 who의 연쇄는 꼬리 구성소인 t만이 [+L-관련성]이면서 [-T-관련성]이고 나머지 구성소들은 모두 [-L-관련성]이면서 [-T-관련성]이다. 왜냐하면 (46b)에서 꼬리 구성소인 t의 자리인 IP의 지정어 자리는 비의미역 위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Chomsky(1993)에 따르면 (46a)에서 who의 연쇄는 비동질적 연쇄이므로 t*를 포함하여 중간 흔적들이 제거되어 도출적 파탄에 이른다. 한편, (46b)에서 who의 연쇄는 [-T-관련성]에 있어서 동질적 연쇄이므로 t*를 포함하여 중간 흔적들이 제거되지 않아 표시적 파탄에 이른다. 따라서 (46a)는 하위인접 조건 위반의 구문으로 정확히 판정되고 (46b)는 공범주 원리 위반의 완전 비문으로 정확히 판정된다.

그러나 L-관련성과 T-관련성을 연쇄 동질성 요인으로 설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동휘(1994: 386-390)을 참조하라.

4.4. 제자리에 남는 의문사구(WH-in-situ)

4.4.1. 흡수(Absorption)와 제자리에 남는 의문사구(WH-in-situ)

Higginbotham & May(1981)는 다음의 (48a)는 (48b)와 같은 논리형태를 도출해 낸다고 한다.

(48) a. Which man saw which woman?

b. [WH! x:x a man][WH! y:y a woman] x saw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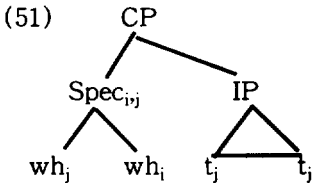
그래서 (48b)와 같은 논리 형태는 소위 “흡수 적용(Absorption Operation)”이라 불리우는 규칙에 대한 입력(input)이 된다고 가정한다. 흡수 적용 규칙은 wh-운용소들의 짝들(pairs)로 부터 n개의 wh-운용소들(n-ary operators)($n \geq 2$)을 포함하는 표지를 생성해내는 효력을 지닌다. $n=2$ 경우의 흡수 과정 규칙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49) [WH_x: N'(x)][WH_y: N'(y)] → [WH_x, WH_y: N'(x) & N'(y)];
 [WH_x: N'(x)]와 [WH_y: N'(y)]는 단수 혹은 복수 의문사구의 인접한 짝(adjacent pair)이다.

(50) 인접한 짝(Adjacent Pair)

wh-구 A가 wh-구 B를 성분통어하고 A가 B를 성분통어하는 어떤 요소도 A가 성분 통어하지 않으면 A와 B는 인접한 짝이다.

흡수 과정 규칙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최소이론에서는 논리형태 의문사구 이동(또는 양화사구 이동)은 의문사(또는 양화사)만 이동시킨다고 보

아왔다. Chosmky(1993: 26)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wh-구를 CP의 Spec에 있는 wh-구와 연결시키는 논리형태 규칙은 α -이동의 한 경우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Higginbotham & May(1981)가 제안한 흡수에 대한 통사적 근거(syntactic basis)로 생각할 수도 있다. 흡수 과정(absorption operation)이란 두 wh-구들을 연결시켜 일반 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를 형성하는 규칙을 말한다. 그렇다면 논리형태 규칙은 이동에 대한 어떤 규칙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52) Whom_i did John persuade t_i [_{IP} PRO to visit whom]?

(52)에서 persuade의 목적어인 의문사구 whom이 문자화 전에 C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C의 강한 운용소 자질에게 자신의 [+WH] 자질을 점점 받음으로써 C의 강한 운용소 자질을 방출시켜 주었으므로 정문이 된다. visit의 목적어 whom은 지연원리에 따라 논리형태에서 C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persuade의 목적어 whom에게 이동하여 부가됨으로써 전자의 whom이 후자의 whom에게 [+WH] 자질을 점점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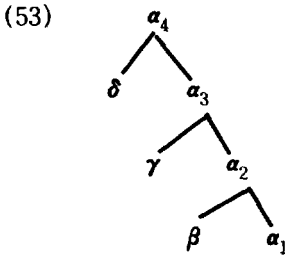
논리형태에서는 의문사구 이동(Wh-movement)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52)와 같은 경우, visit의 목적어인 whom은 논리형태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visit의 목적어 whom은 [+WH] 자질을 어떻게 점점 받을 것인가?

논리형태 의문사구 이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논리형태 해석과정에서 C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의문사구와 제자리에 남아있는 의문사구(wh-in-situ)는 소위 흡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일반화 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로 결합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일반화 양화사로 결합된 개별 의문사구들은 그 의문사구들 중에서 하나만 [+WH] 자질을 점점 받으면 나머지 의문사구는 [+WH] 자질을 점점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2)의 경우 CP의 지정어 자리의 whom과 visit의 목적어 자리의 whom이 흡수를 통해 하나의 일반화 양화사로 결합되면 전자의 whom이 [+WH] 자질을 점점 받았으므로 후자의 whom은 [+WH] 자질을

점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4.2. 필수이론(Bare Theory)과 제자리에 남는 의문사구

필수이론(Chomsky(1994))에서는 비대칭 병합(asymmetric merger)에 의하여 형성된 다음(53)와 같은 하나의 구조에 대하여 대입 부가 또는 지정어 부가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¹⁰



(53)에서 a_1, a_2, a_3, a_4 가 모두 독자적 범주라면 β, γ, δ 는 모두 지정어로 해석된다. 반면에 a_2, a_3, a_4 가 모두 독자적 범주가 아니고 부분이라면 β, γ, δ 는 모두 부가어로 해석된다. 또 만일 a_2 는 범주이고 a_3 는 부분이고 a_4 는 다시 범주라면 β 와 δ 는 지정어로 해석되고 γ 는 부가어로 해석될 것이다. 반대로 만일 a_2 는 부분이고 a_3 은 범주이고 a_4 는 다시 부분이라면 β 와 δ 는 부가어로 해석되고 γ 는 지정어로 해석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수이론은 다중 부가어(multiple adjunct) 구조 뿐만 아니라 다중 지정어(multiple specifier) 구조, 나아가 부가어-지정어 혼합구조까지 허용한다.

다중 지정어 구조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제자리에 남는 의문사구에 대해서도 점검자 핵이 자신의 최대투사범주에 부가된 요소를 점검해 준다고 했던 것을 점검자 핵이 다중 지정어를 점검해 주는 것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V. 끝맺음

최소이론하에서 Chomsky & Lasnik(1991)의 제안에 따라 PRO

는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영격(Null Case)을 점검받아야 함을 의문사구 흔적의 격 자질 점검과 더불어 논의해 보았다. 의문사구 흔적의 연쇄가 적합하게 점검된 격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구 연쇄는 영격만이 적합하게 점검되는 내포절 IP의 지정어 위치가 아닌 구조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는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하위인접 조건과 공범주 원리의 위반을 위반 흔적을 포함함으로 인한 도출상의 파탄과 표시적 파탄의 양상을 보았다. 따라서 공범주 원리 위반이 논리형태에 위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하위인접 조건 위반보다 더 심한 비문법성의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최소이론에서 제자리에 남아있는 wh-구를 α -이동의 한 경우로 보지 않고 두 wh-구들을 연결시켜 일반 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를 형성하는 규칙인 Higginbotham & May(1981)가 제안한 흡수 과정(absorption operation)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것은 필수이론(Chomsky(1994)의 비대칭 병합(asymmetric merger)에 의하여 형성된 대입 부가 또는 지정어 부가어와 관련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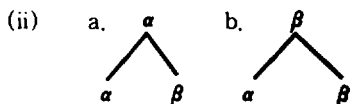
내 용 주

1. 가정하고 있는 것은 점검되는 자질들은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질들은 중재 역할만 할 뿐이다. 즉, 점검의 역할만 수행하고 나면 그 자질은 사라진다. 강 자질은 음운부에 가시적이므로 PF 전에 점검이 끝나야 한다. 약 자질은 논리형태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점검이 LF 에서든지 혹은 이 이전에 끝나야 한다. 점검되지 않은 자질들은 남게 되지만 해석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출은 합법적인, 혹은 수렴하는 도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여기서 흔적은 의미 해석을 위해서, 특히 동사 흔적과 같게 되는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따라서 제거될 수 없다.
3. 이 두 틀/framework)의 또 다른 차이는 LGB 형태는 격 부여의 이론이고 최소이론은 점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전환은 이 과정이 적용되는 층위와 관계가 있다. 즉, LGB 형태에서는 S 구조에서, 최소이론에서는 논리형태에서 이루어진다.
4. 여기서는 V-이동과 NP-이동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Chomsky(1992)를 참조하라.

5. 연쇄조건은 도출상의 조건인 최후수단 원리(Last Resort Principle)로 용축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영격은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외현적 구조격과 같이 구조격임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구조적인 영격이 점검되는 위치로부터 다른 구조격이 점검되는 위치로의 이동은 연쇄조건을 위반한다. 또한 영격은 주격이 대격을 가진 명사구를 점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현적 구조격을 가진 명사구를 점검할 수 없다. 따라서 연쇄조건은 영격 위치에 구조격을 가진 명사구를 배제한다.
6. PRO가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예외적 격표시 동사의 보충어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Watanabe(1993)의 이론은 불어와 이탈리아어의 예외적 격표시 동사는 그 비시제 보충어절의 범주로 CP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7. (17)의 의문사구의 연쇄가 그 구성소로 내포절 IP의 Spec에 남긴 흔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13)이 배제되는 동일한 이유로 배제된다.
8. Chomsky(1986b)에서 Aoun과 Sportiche의 c-command의 정의가 m-command로 불리운다.
9. T와 AGR은 어휘 자질은 갖고 있지만 어휘 범주는 아니다. 그래서 "어휘범주"를 "어휘 자질을 가진 범주"로 바꾸었다. 또한 T와 AGR이 그 보충어를 의미역 표시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Chomsky(1986b)는 VP는 I에 의해서 의미역 표시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Chomsky(1986b)에서의 I 는 Chomsky(1992)에서는 T와 AGR로 나뉘어진다. Higginbotham(1995)에서 I는 VP의 사건 장소(event place)를 의미역 결속(theta-bind)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T와 AGR은 그 보충어를 의미역 점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가정하겠다.
10. 필수이론에서는 비대칭 병합을 개념적 필연성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비대칭 병합은 (i)과 같이 정의되며 그 결과 생겨나는 구조는 (ii)와 같다.

(i) 비대칭 병합

독립된 두 개체(구조표시) α 와 β 를 병합하여 새로운 개체(구조표시)를 형성하고, 그 새로운 개체의 정점(dominating node)을 α 또는 β 로 한다.



참 고 문 헌

양동휘(1994) 『문법론』, 한국문화사.
 Browning, M. (1987) *Null Operator Constructions*, Ph.D.

- dissertation, MIT.
- Chomsky, N. & H.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i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 J. Jacobs, A. vo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de Gruyter.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 Freidin, The MIT Press.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1.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MIT Press.
- Higginbotham, J. (1985) "On Semantics," *Linguistic Inquiry* 16, 547-594.
- Higginbotham, J. & R. May(1981) "Questions, Quantifiers, and Crossing," *The Linguistic Review* 1.1.
- Kayne, R. (1983)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Dordrecht.
- Martin, R. (1992) "On the Distribution and Case Feature of PRO,"
- Murasugi, Kumiko G. (1992) *Crossing and Nested Paths: NP Movement in Accusative and Ergative languages*,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Pollock, J. -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46, 365-424.
- Rizzi, L. (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Foris, Dordrecht.
- Rizzi, L. (1989)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 Ura, Hiroyuki(1993) "On Feature-Checking for Wh-trace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8.
- Watanabe, A. (1993) "The Notion of Finite Clauses in AGR-Based Case Theor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8.

이상오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727번지
전북 산업대학교 영어과